주가	환율	금리
+6.83	-2.70	+0.01
1,355.21 (코스피지수)	944.10원 (원/달러)	4.6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7.29	(-2.13)
다우(22일)	11,508.10	(-25.13)
나스닥(22일)	2,218.93	(-18.82)
닛케이	15,663.81	(-0.86)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60엔	(+0.12)
유로 달러 환율	1.2806달러	(+0.13)
3년만기 회사채	4.97%	(+0.01)
콜금리	4.48%	(-0.01)

수완지구 '디자인시티'로 만든다

토공, 500억 규모 조경공사 내달 발주…12월 착공

풍영정천 주변 호수·숲속조각 등 '명품공원' 조성

호남권 최대 신도시인 광주 수완지구가 50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디자인시티'로 본격 조성된다.

특히 수완지구는 전문가가 디자인한 공공가로시설물에 특화된 예술품과 조형물, 공공시설물 등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주거 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40만평 규모의 수완지구를 에코라인과 아트라인 등 2개 축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가 오는 10월초 500억원의 사업비로 발주된다.

토공의 '조경특화'는 크게 에코라인과 아트라인으로 구분된다. 에코라인은 풍영정천을 중심으로 한 수직축으로 호수공원, 숲속조각공원 등 '명품 공원'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트라인은 에코라인의 중앙를 가로지르는 수평축으로 퍼블릭아트와 버스쉘터(유개승강장), 가로등, 안내사인 등 특화된 공공가로시설물이 들어선다.

특히 지구 중심의 호수공원에는 대형음악분수와 각종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야간경관조명 등이 설치돼 인근 '호수공원 쇼핑몰'과 함께 신도시의 랜드 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호수공원과 인접한 풍영정천에는 천사의 계단, 피아노, 바람꽃 등 각종 '퍼블릭 아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숲속조각공원도 신도시의 명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호수공원 상단에 위치한 숲속조각공원에는 송죽림을 따라 각종 조각 작품들이 조성되며, 산 정상에는 상설전시장과 전망대를 갖춘 아트겔러리가 들어선다. 조각공원 인근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바닥 분수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토공은 수완지구에 '아트 리버 시티(Art River City)'라는 도시브랜드를 도입

했다. 이에 따라 수완지구내 버스·택시쉘터, 의자, 휴지통, 가로등, 자전거 보관대 등에는 전문가가 설계한 국내 유일의 공공가로시설물이 설치된다. 수완지구의 '조경특화'는 단지내 총 4개 지구에 걸쳐 시행되며, 오는 12월 본 공사가 착공돼 2008년 6월께 완공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수공원 조감도.

숲속 조각공원 조감도.

삼성전자 '지펠 콰트로' 3개월만에 1만대 판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립냉각 4도어 냉장고 '지펠 콰트로'(Zipel Quatro)가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을 석권했다.

'지펠 콰트로'는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전체 양문형 냉장고 판매량 가운데 7%, 프리미엄 양문형 냉장고(인테리어 지펠) 판매량의 17%를 차지하는 등 지난 6월말 출시 이후 9월 현재까지 누적판매량이 1만대에 다가섰다.

특히 710ℓ 급 홈바형(SRM716QWT)은 280만원대 고가 제품임에도 '지펠 콰트로' 전체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3천여대(30%)가 판매됐다. 판매 증가율도 월평균 50%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펠 콰트로'가 동급 용량의 다른 제품에 비해 50만~60만원 이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원동력은 생활패턴에 따라 냉동·냉장 용량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신규채용 60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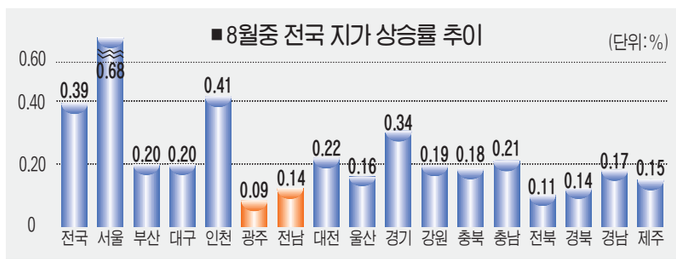
40명을 모집하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 신규채용에 2천4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 최근 심각한 실업난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여수축협의 경우 2명 모집에 300명이 몰려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본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시군단위별(품목농협 및 축협은 조합단위)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연고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9일 전남농협 홈페이지 (http : //jeonnam.nonghyup.com)를 통해 발표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8월 땅값 안정세 뚜렷

광주 동구 0.02% 하락

전남도청 이전 여파

정부의 각종 규제와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8월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 7월과 같은 0.39%로 두달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다.

특히 광주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구의 경우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토지수요 감소로 인해 지가가 지난해 8월보다 0.02% 하락,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남도청 이전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또 남구와 광산구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래 감소로 인해 지난해 8월보다 27.8% 줄어든 3천697필지가 거래되는데 그쳤다.

전남도 지난달 농림 및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거래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22.2%, 22.8% 줄었다. 또 나주시의 지가가 0.66% 상승한 것을 비롯, 무안군(0.34%), 해남군(0.27%), 영암군(0.09%) 등 주요 관심지역의 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승률은 0.14%로 둔화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울 공공아파트 후분양"

뭇시장 분양가 전면 재검토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며, 이미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 일정 및 분양가도 전면 재검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당장 당초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도 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는 내년 9~10월로 분양시기가 늦어지며, 분양가 및 분양계획도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공급 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은평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과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추석 주류 매출

위스키↓ 와인↑

올해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선물로 각광을 받아오던 위스키 매출은 줄어든 반면 와인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신세계가 15~24일 매출과 지난 3년간 추석시즌 매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위스키와 와인 매출비가 7대 3가량 이던 것이 올해는 3.5대 6.5로 반전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웰빙 열풍에 힘입어 노화와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와인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그간 추석선물로 인기를 모았던 수삼과 영지, 꿀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0%정도 감소한 반면, 홍삼과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 매출은 5~10% 상승했다.

이와 함께 올리브유와 마시는 식초 등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상승했으며 통조림 제품은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광주신세계 강신주 식품팀장은 "올 추석은 갈비, 굴비, 청과 등의 전통적인 추석 선물의 강세속에 건강중시의 트렌드에 힘입어 친환경 고급 먹거리와 건강식품, 와인 등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